

목록

2008(1)_1	1
2008(1)_2	2
2008(1)_3	3
2008(1)_4	4
2008(1)_5	5
2008(1)_6	6
2008(1)_7	7
2008(1)_8	8
2008(1)_9	9
2008(1)_10	10
2008(1)_11	11
2008(1)_12	12
2008(1)_13	13
2008(1)_14	14
2008(1)_15	15
2008(1)_16	16
2008(1)_17	17
2008(1)_18	18
2008(1)_19	19
2008(1)_20	20
2008(1)_21	21

그림비

2008년도 1학기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학회지

지정과의 영원한 백세지사 | 이용남 교수님

위풍당당 우리의 이름은 지정인

시나브로 지정인

인연 그 소중함과 아름다움

울고 웃는 2008년 화재거리

구름발치로 떠나다 | 지정속의 자유인

오감충족 이야기

<내림비치>



'그림비'란 순우리말로 젊음이, 청년을 뜻 합니다.

I. 지정과의 영원한 백세지사(百世之師), 이용남 교수님

강단을 벗 삼아 선재를 길러내신 한성대학교 이용남 교수님

II. 위풍당당(威風堂堂). 우리의 이름은 지정인

1. 도서관에 변화가 불다
2. 과거와 현재 미래의 수평선상의 공존, 대학교 기록관에 다녀오다.

III. 시나브로 지정인

1. 지정의 정보 여기 다 모여라
2. 지정의 여신상 학생회장의 한마디
3. 추억 그 안의 우리들
4. 새내기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IV. 인연. 그 소중함과 이름다움

1. 지정과의 핏줄을 만나다.
2. 현직에 계시는 선배님 찾아가기

V. 울고 웃는 2008년 화재거리

VI. 구름발치로 떠나다. 지정속의 자유인

1. 주말에 어디로 떠날까? 서울 근교 여행지
2. 배낭 맨 당돌한 지정인이 나서다.

VII. 오감충족 이야기

1. 서점에서 엿보는 대중의 선택
2. 지정인의 생활정보란

VIII. 해피엔딩. 그리고

편집후기

2008년도 1학기 그림비 공간을 격려하며

한 학기를 마무리해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과목별 숙제와 시험을 보고 여름방학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학생들도 단순히 자신의 입장에서만 무엇을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주변을 돌아보고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내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보 1호인 남대문이 人災로 인해 어이없이 불에 타버렸고 최근에는 쇠고기 FTA 협상문제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해일과 지진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과 미얀마 사상 최악의 사이클론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합니다. 이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웃나라들의 이야기며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자연재해와 인재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환경보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1학기에는 전 학기에 비하여 학과 새내기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행사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연합 MT에도 지난해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인문대 체전에서는 우승을 하였으며, 행사 때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용남 교수님의 특별강연 때는 DLC를 꼭 채워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지식정보학부 모든 교수님과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5살 지식정보학생회를 이끌고 있는 김정은 학회장 이하 모든 학생회 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그림비는 전체를 7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2008년도 전반기에 있었던 중요한 기사들을 풍성하고 재미있게 구성하여 실고 있습니다. '지정과의 영원한 백세지사'에는 이용남 교수님께서 학교를 떠나시면서 학생들에게 남겨주시는 말씀과 학생들이 교수님을 추억하는 아름다운 글들이 들어 있습니다. '위풍당당 우리의 이름은 지정인'에는 미국도서관계와 한국도서관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정리하였고, 서울대 기록관을 견학하고 느낀 내용을 실었습니다. '시나브로 지정인'에는 지정인의 행사와 경조사를 정리하였고, 학회장으로서 보고 느낀 학생회 활동의 소감과 앞으로의 다짐을 실었습니다. 또한, 새내기의 입학 후의 소감을 실고 있습니다. '인연, 그 소중함과 이름다움'에는 지정동문회와 현직에 있는 선배들의 활동을 실어서 동문회의 활성화와 지정인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울고 웃는 2008년 화재거리'에는 2008년의 이슈와 사건들이 소상하게 실려 있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시각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름발치로 떠나다, 지정속의 자유인'에는 주말 여행지의 소개와 이탈리아 배낭여행기가 실려 있어서 학생들의 여행에 관한 관심을 자극하고 있고, '오감충족 이야기'에는 서점의 베스트셀러를 선정하여 읽은 독후감과 지정인의 생활정보를 실고 있습니다. 한성대는 21세기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성의 새로운 얼굴인 UI가 변경되었습니다. UI의 의미는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겠다는 한성대학교의 의지를 모던하고 심플한 3D의 전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여 이니셜 H를 형상화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부도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원에 문헌정보학 전공이외에 기록관리학 전공을 추가로 신설하였는데 문헌정보학 전공에 7명이, 기록관리학 전공에 6명이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고, 이어 두 전공분야에 추가로 4명이 더 입학할 예정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발전하고 있는 지식정보학부에 자부심을 갖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학기로 지식정보학부장의 임기를 마치고 1년간 연구년을 가게 되었습니다. 1년간 학교 밖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2009년 2학기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지켜보아주신 지식정보학부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008. 6. 5

지식정보학부장 강글애 교수

우리 지정학부 학생들이여, 활짝 날개를 펴거라

이 용 남 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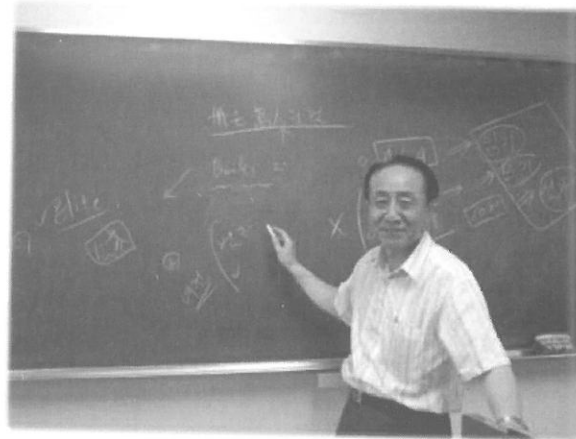
내가 한성대학에 발을 들여 놓은 지 어언 27년째 되는 해에 이제 맡은 역할을 다하고 사랑하는 한성 캠퍼스를 떠나게 됩니다.

1981년도에 우리 학과 첫 선배들이 등지를 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변화 모습을 전주어 보자니 감회가 벅차오릅니다. 신설학과임에도 과별 야유회나 MT 때에는 거의 전원이 참석하여 단합을 과시한다던가, 교내 체육대회에서는 1,2학년 뿐 이면서도 악발이 근성으로 학생수 많은 다른 학과를 물리치고 우승을 한 다던가, 대학 전체 차원의 학생활동에서도 여러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등 학과를 강하고 내실 있게 하는데 우리 선배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90년 전후의 우리과 학생회 소식지 원두언 컬럼란에 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라는 제목의 글을 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도서관의 본질은 물론, 사회의 모든 현상과 가치론적 측면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학과의 현실적 모습도 염두에 두었음은 물론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학과는 작기만 한 학과가 아닙니다. 90년대 말 야간코스가 생기고 대학원은 석사과정부터 시작하여 박사과정도 갖추었으며, 학부와 대학원의 전공도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으로 확대되었으며, 전공 교수 수도 전국 40개 대학중 가장 많은 편입니다. 이제 학과 창설 30주년을 몇 년 앞둔 오늘날 여러 학생들 앞에는 커다란 소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어, 여러분이 일류 문헌정보학도로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한성인이 되도록 자질을 연마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지정학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당당한 자세로 타대학 학생은 물론, 도서관계 다른 사서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꿈의 날개를 펴고 훨훨 날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몸은 비록 학교 캠퍼스를 떠나지만, 학과 창설 첫 교수로서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회활동을 끝없이 지켜보고 격려와 꾸지람도 하면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지정과의 영원한 백세지사(百世之師)



받는 기쁨: 강단을 벗 삼아 선재를 길러내신 한성대학교 이용남 교수님
드리는 기쁨: 지식정보학부생(차준호, 김주성, 장경선, 황인영, 신현희)

02학번 차 준 호 학생이 올리는 글

존경하는 이 용 남 교수님께.

처음 대학에 들어와서 '도서관과 문화' 라는 과목을 배울 때 이용남 교수님을 처음 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저는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처음 대학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교수님 보다는 이웃집 아저씨 같이 언제나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교수님이 떠오릅니다. 사실 그때 공부는 안하고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만하고 열심히 참여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한성대학교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때 잘 들어들걸 후회가 들기도 하고 교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제자는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 에서 교수님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는 게 효율이다." 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 반갑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정권이 바뀌어도 옳은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큼이나, 그 지식을 실천하고 행동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이용남 교수님! 도서관에 대한 교수님의 열정과 사랑이 늘 저희에게 귀감이 되고 저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지표가 된다는 것을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 강의를 들었던 모든 동문 선배, 동기들, 후배들과 함께 지금까지 지식을 넘어 많은 것을 남겨 주시고 저희들 곁을 떠나시는 이용남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오래오래 건강 하세요!

03학번 김 주 성 학생이 올리는 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껏 부풀은 설렘과 함께 시작되는 대학 생활 속에서 처음 교수님을 뵈는 게 엇그제 같은데, 지나가는 시간은 어찌 그리 빠른지 저도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있고, 교수님께서도 이제 학교를 떠나시려 하고 있네요. 처음 교수님께서 학교를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선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언제나 저희에게 커다란 느티나무와 같았던 교수님을 더 이상 학교에서 뵈 수 없다니요. 교수님의 강의를 처음 들던 그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며 "고등학교 어디 나왔니?" 하며 지으시던 미소가 아직 생생한 걸요. 강의시간이 지루할까봐 중간 중간 농담을 건네시면 강의실이 떠나가도록 울리던 웃음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있는걸요. 저희가 학생의

본분을 잠시 잊고 나태해질 때면 무섭게 호통 치시던 모습이 떠오를 때면, 지금도 헤이해진 마음을 가다듬는 한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께서 학교를 떠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용기 내어 펜을 들긴 했지만, 막상 저의 글은 교수님과 추억에 잠겨 아쉬움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교수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그 빈자리가 무척이나 커 보이겠지만, 저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음을 알기에, 하지만 그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약속하고 있음을 믿고 있기에, 무작정 섭섭해 하기보다는 교수님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 못난 제자의 글을 줄이려 합니다. 그동안 저희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용 남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06학번 장 경 선 학생이 올리는 글

교수님, 감사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듣는 대학의 첫 강의. 지식정보학부 학우라면 누구나 이용남 교수님의 수업을 가장 먼저 들었을 것이고, 평생 잊지 못할 대학의 첫 강의로 기억속의 책장 안, 빛나는 자리에 보관해 놓을 것이다.

교수님의 강의는 그저 딱딱한 이론이 주를 이루지 아니했다. 몸소 겪으신 도서관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전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직도 도서관법 개정 과정에 대해 열의 넘치시게 설명해 주시던 교수님의 모습이 생생하다. 강연하시는 교수님의 음성, 얼굴 표정 하나하나만으로도 그 당시 상황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도서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셨던 교수님의 노고에 수업을 듣는 내내 마음속으로 박수갈채를 보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감히 내가 도서관계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의 수업을 몇 학기 동안이나 들었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전공에 관해 무심했던 내 자신에 대해 반성하게 되고, 도서관계를 성장시켜야겠다는 자긍심이 들기도 했다.

‘인자하시다.’, ‘너그러우시다.’ 라는 말을 어떤 분에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해주신 분. 앞으로 ‘인자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용남 교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를 듯싶다.

우리학교, 우리학과에 교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는데, 곧 퇴임을 하신다니 이 아쉬움과 서운함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교수님의 모습이 나를 비롯한, 우리 지정인 모두에게 그리움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에 더없이 안타까울 뿐이다.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자랑스러움을 가슴에 담고 부끄럽지 않은 지정인이 되어야겠다. 다시 한 번 이용남 교수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07학번 황 인 영 학생이 올리는 글

묵묵히 학생들에게 참된 진리와 교훈을 주시어 사회에 많은 인재를 양성하신 지식정보학부의 가장(家長)과도 같았던 이 용 남 교수님께서 2008년도 1학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십니다. 그에 따르는 학생들의 서운한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교수님께서 교정의 벚꽃이 반복하여 피고 진 시간만큼 수많은 제자들을 보아오셨고, 그 기나긴 행복의 시간이 이제는 결실의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바른길로 인도해 주신 덕분에, 미숙하기만 하였던 학생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교수님의 노력과 정성과 열정이 있었음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큰 제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이 용 남 교수님. 제자들을 아끼셨던 그 다정한 마음은, 부모의 그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저희 또한 교수님을 영원한 백세지사로 기억할 것입니다. 교수님의 퇴임이 서운하기만 하지만 앞으로도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는 교수님의 진리와 뜻을 본받아 더욱 더 발전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08학번 신 현 희 학생이 올리는 글

대학을 오기 위해 수능을 준비하던 2007년을 보내고 2008년, 고대하고 고대하던 나의 대학생활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첫 주에 나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있었다. 하지만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 내가 생각하던 것만큼 재밌지 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일주일 중 마지막 강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남 교수님의 도서관과 문화를 들었다. 물론 도서관에 대해 배운다는 것이 매우 새로워 금방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도서관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준 강의였다.

첫 강의를 하시던 날,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소개서를 써오라고 하셨다.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했다. 그리고 그 다음시간에 교수님께서 아이들의 자기소개서를 다 읽어 오시고 출석을 부를 때 우리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누셨다. 다른 교수님들이 단순히 출석을 체크하려고 부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게 느껴졌다. 우리는 교수님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만큼 우리도 교수님에 대해 존경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수님께서 항상 교재를 이용한 강의만을 교수하시지 않고, 영상물관람 같은 것도 하셨다. 영상물을 관람한 뒤에는 항상 교수님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과제를 해온 뒤에도 그 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얘기를 나눴다. 우리는 교재만을 통해서 배우는 것 말고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나에게는 첫 교수님이었던 이용남 교수님이 퇴임을 하신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교수님이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신다고 하셔도 나에게는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키워주신 교수님, 대학이 생각처럼 삭막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려주신 교수님, 책에 있는 것만이 아닌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신 교수님으로 기억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수평선상의 공존 대학교 기록관에 다녀오다

황 인 영 (지식정보학부 07학번)

우리학과의 명칭은 지식정보학부이며, 학부과정에는 문헌정보학 뿐 만 아니라 기록관리학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학과 학우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기록관리학을 접해보지 않았던 1학년시절에는 사실 기록관과 도서관의 차이도 알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숙한 나였다. 하지만 기록학에 대해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서 기록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록관리학이 문헌정보학과 별개의 학문이라는 편견도 사라졌다.

내가 기록에 흥미를 갖게 되었을 시점에, 기록학 강의를 함께 듣는 학우들과 기록관을 견학하였다. 역사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을 그 곳이었다.

내 나름대로 기록관을 정의하자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 아닐까?

동기들과 나는 국가기록원인 나라기록원에 가보고 싶었지만, 위치상의 거리 때문에 다음을 기약한 채 가까운 대학기록관(서울대학교기록관)에 갔다.

학교의 규모에 비해 기록관은 의외로 아담한 크기의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다. 기록관 안에 들어서자 바로 아키비스트를 만나 볼 수 있었다. 기록학을 배우고 있는 학부생으로서 그동안 궁금하였던 질문들을 직접 할 수 있었다. 일단 우리는 서울대학교 기록관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다. 아키비스트는 서울대학교의 역사 50주년을 기념하던 해에 기록관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큰 대학교라고 해도 기록관이 창설된 지는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랍기도 했고, 대학교 기록관의 현실을 알게 해주는 듯 했다. 그리고 기록관이 한 건물을 모두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를 빌려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현재 기록관이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가능해볼 수 있었다. 물론 이는 기록관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기록관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 위치가 아직은 크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많은 대학교에서 기록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기록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우리 한성대가 앞으로 기록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일까? 한성대학교는 지난해 35주년을 기념하여 교내에 한성대학교 사료관을 작은 규모로 만들었다. 작년에는 사료관 수준으로 그쳤지만, 앞으로 역사를 기념할만한 해를 기회 삼아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기록관 또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학교기록관은 특성상 학교의 역사를 중요한 기록물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기념이 되는 해에 역사를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기록관이 설립된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고, 차차 보완해나가며 온전한 형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교 기록관은 기록물의 수집뿐만 아니라 학교 역사의 홍보와 고등교육센터의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는 대학교기록관이 단순히 자료수집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여러 연구에 지원하고 함께 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그 활용도와 중요성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

이번 서울대학교기록관 견학을 통하여, 기록관과 기록물에 대하여 이론으로만 배워왔던 것들을 실제로 체험해 봄으로써 나의 궁금증이 해소된 듯하다. 기록을 후대에 남겨주는 것은 역사를 전승시키는 중대한 작업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서울대기록관 건물

도서관에 변화가 불다

김 술 (지식정보학부 08학번)

최근 국내·외의 도서관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예로써 미국은 지난해 공공도서관의 25%가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비중이 50%에 달한다고 한다.

공공도서관 못지않게 대학도서관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모닝사이드대학교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자 2006년 도서관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학교 측이 밝힌 도서관 재정비의 핵심 요소는 도서관 건물 1층에 '스폰홀더'라는 상호의 카페를 설치한 것인데, 카페를 만듦으로써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편리하게 음식을 취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센트럴파이드몬트 커뮤니티대학교 역시 지난 해 9월 도서관 내 커피숍을 열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학 임시도서관장 제니퍼 케이 아놀드는 "컴퓨터 주변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학생들이 음식을 취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브런즈윅에 위치한 바우도인 대학교는 지난 2월 학내 호손로펠로 도서관 지하에 음료 및 과자 자동판매기를 설치, 음식물 취식을 허용했다. 이는 학생들과 동문들의 찬성 속에 받아들여졌다.

한국의 충북 영동대 도서관에는 만화방이 생겼다. 대학 측이 이달 초 중앙도서관 1층에 만화방을 열면서 연일 학생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만화방은 일반 교양도서관은 물론, 역사, 경제, 자연과학, 공학, 외국어 등 여러 분야의 만화도서 2000여권을 갖추고 있다. 대학측은 만화방을 종합문화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독서대와 사각 테이블을 치우는 대신 폭신한 소파를 들여놓았다. 카페나 휴게실 같은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이곳에는 매일 200여명 이상이 찾아온다.

우리나라도 이런 외국의 움직임에 따라 변해야 할 것이다. 변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 도서관이 일종의 독서실로 전락해버린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도서관도 아파트 단지의 책 대여점에 빼앗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은 단순한 공부방이 아닌 새로운 지식 소통의 공간과 종합문화공간으로 거듭 나야 할 길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서직의 역할 전환도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엄청난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도서관의 기능도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있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의 무한 검색이 가능하다 보니, 학생들의 공부 방식이나 보고서 작성 방법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도서관협회에서는 도서관이나 자료실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보유 장서의 수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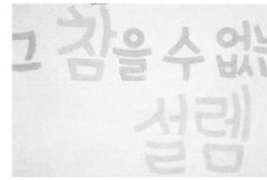
도대체, 요즘 도서관에 가서 국어대사전이나 대백과사전, 그리고 각종 연감 등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아카이브즈(archives) 차원의 책자나 논문집 보존을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그리고 지역별 대형도서관 하나씩이면 족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큰 도서관에서 맡아준다면 지역의 소규모 도서관은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

외국의 도서관들이 책뿐만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찾는 동안 한성대의 학술정보관처럼 영화나 기타 영상들을 제공한다는 기사는 보지 못해서 이러한 학술정보관을 가진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부듯했다.

- 심지수 (지식정보학부 08학번)

지정의정보 여기 다 모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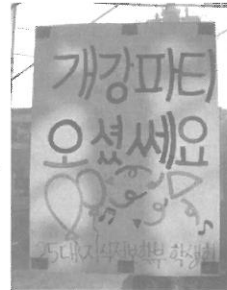
◎ 예비학교!



입학 전 2월 22일, 08새내기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 선배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자리였습니다. 25대 학생회 소개, 작년 추억영상 상영, 문화부 선배님들의 마임, 캠퍼스투어 등등 많은 프로그램들과 뒤풀이까지 모두 즐겁고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 개강파티!

지난 3월 14일 화이트데이, 2008년 1학기 개강을 축하하는 개강파티가 WAWA에서 열렸습니다. 선·후배가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며 수업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학교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새내기 새로 배움터!



지난 2월 25~27일, 한성대학교 신입생들과 재학생 선배님들이 다함께 새터를 다녀왔습니다. 단과대별 시간, 학부별 시간을 보내고, 동아리들의 공연, 씨야와 리쌍의 축하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선·후배 간, 동기간의 어색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 4학년 최 은 영 선배님, 제 24대 총학생회 선거 당선!



지난 3월 26일 치러진 제24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기호 2번 '액서니스타'의 우리과 4학년 최 은 영 선배님과 무역학과 김 광 선 선배님이 당선되었습니다. '액서니스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연합모꼬지!



지난 3월 29~30일, 우리 지식정보학부 학생들과 교수님들까지 모두 함께 연합모꼬지를 다녀왔습니다. 비가 와서 야외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실내에서 게임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지식정보학부의 안녕을 위한 고사를 지내는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정인 들이 한층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 인대체전 우승!



지난 4월 30일~5월 2일, 우리 지식정보학부가 인문대 체전에서 당당히 우승했습니다. 족구, 축구, 피구, 발야구, 줄다리기, 손님 찾아 달리기, 줄넘기, 3인 4각, 장기자랑, 응원전 등의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지정인들 수고하셨습니다. 냉장고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 새내기 동기엔터



5월 4~5일 08새내기들이 드디어 동기엔터를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대성리.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진지한 대화도 나누며 동기들끼리 더욱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이용남 교수님, 이번 학기를 끝으로 퇴임!



도서관과 문화, 도서관경영론, 공공도서관론, 대학도서관론을 가르쳐주시던 이용남 교수님께서 2008년 1학기를 끝으로 퇴임하십니다. 열과 성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주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한 학기 밖에 들을 수 없다는 것이 08학번 학생으로서 참 아쉽습니다. 정년퇴임을 축하드립니다.

◎ 사서직 구인정보!

- 서울 대모초등학교 전자도서관(대출, 반납, 배가 등의 업무)

6/9~ ohm7998@nate.com 이력서 제출

자격요건 : 문헌정보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생

- 한국영상자료원(열람안내, 자료정리)

6/29~ fickle@koreafilm.or.kr 이력서 제출

자격요건 : 컴퓨터 및 엑셀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 중앙구립면목정보도서관(야간운영 사서직 모집)

6/9~ 면목도서관 5층 관리실로 이력서,

준사서자격증, 주민등록등본 제출

-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도서 및 자료정리)

6/19~ zdeepond@empal.com 이력서 제출

(추후 졸업증명서, 자격증 제출)

이 밖에 사서직 구인정보(정규직,비정규직)나 취업,

문헌정보학 커뮤니티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사서e마을' <http://www.librarian.co.kr/> 을

이용해주세요.



지정의 여신상 학생회장의 한마디

김정은 (지식정보학부 05학번)



안녕하세요! 지식정보학부 25대 학생회장 05학번 김정은입니다.

이렇게 한 학기를 되돌아보면서 글을 쓰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 겨울 학생회 선거를 시작으로 2008년 수시 합격생들과 함께한 첫 번째 정모, 예비학교, 새내기 새로 배움터, 개강파티, 연합모꼬지, 대동제 등 정신없이 달려온 1학기가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지정인의 밤에서 새로운 학생회의 시작을 알리는 소개의 자리에서 어찌나 떨렸던지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던 그 때를 기억합니다. 온라인 카페에서만 이야기하던 08학번 새내기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긴장했던 첫 번째 정모, 새내기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2박 3일간의 새터가 08학번 후배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소풍가기 전날의 어린 아이처럼 잠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3월 말의 연합모꼬지 전날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학생회장이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우범 교수님의 수업시간에 제 뒤에 앉아 있던 24대 부 학생회장 김모 후배에게 진지하게 저의 의사를 이야기 했습니다. 6년 동안 남자 선배님들이 학생회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 스스로 '여자' 학생회장이라는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으신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저에게 '여자' 만이 할 수 있는 부드러움으로 올 한해 잘 이끌어 가면 된다고 정말 많은, 큰 용기를 주었기에 제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일사천리로 선거가 진행되었고 회장으로 출마한 저와 부 학생회장으로 출마한 두 명의 후배가 당선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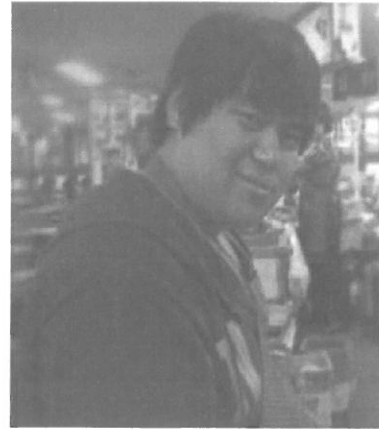
저는 2006년에 지금은 졸업하신 02학번 윤상호 선배와 23대 학생회에서 총무로 일을 했습니다. 건설 준비 위원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 학생회장 두 친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회장을 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2008년 학생회 친구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학부와 학우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학부에 대한 애정을 심어주고 싶었고, 이 애정으로 인해서 학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학부와 학우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항상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학우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행사 하나하나를 앞두고 저는 '학생회' 의 의미를 마음 속 깊이 되새겨 봅니다. 저는 결코 저 혼자 이 자리에 서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학생회장을 하셨던 저의 선배님들과 그 선배님과 함께 일했던 학생회, 그 학생회와 함께 했던 수많은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수님들과 저의 동기들, 후배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따끔한 충고와 따뜻한 가르침은 저에게 당근과 채찍이 됩니다. '힘들다' 고 생각되는 순간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이 모든 분들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25대 학생회 친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세심한 부 학생회장 최애실, 결단력 있는 부 학생회장 윤요섭, 우리 학우들의 소중한 학생회비를 알뜰하게 쓰려고 항상 고민하는 총무 이은정, 행사의 전체적인 기획과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맡고 있는 기획부 부장 오지영 과 기획부 차장 장우영, 학부의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홍보를 맡고 있는 선전부 부장 이백록, 선전부 차장 홍성현, 바쁜 학업생활 중에도 열심히 연습해서 맛있는 마임으로 실력발휘를 하는 문화부 부장 김미화, 문화부 차장 김송정, 우리 학부의 소소하지만 알찬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밤낮으로 눈에 불을 밝히고 있는 편집부 부장 황인영, 편집부 차장 허지영에게! 저의 가족인 이 친구들과 함께 끝까지 잘 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하겠다는 처음 다짐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내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상혁 (지식정보학부 08학번)



난 수시합격생이다. 그리고 합격 발표가 10월 말에 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전에 타 대학에 합격해 놓은 터라 별 부담 없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게 탕자탕자 놀다 보니 한성대학교 발표 일이 다가왔다. 사실 적성검사 시험을 칠 때 문제를 열 개 정도 찍고 나와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 일인가? 지식정보학부(주) 합격! 교무실에서 기뻐서 소리를 지르다가 학생주임선생님께 시끄럽다고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 한 대를 맞았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대형 현수막에 IN서울 명단에 내가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다. 대학 붙었다는 나태함에 몇 달을 나무늘보적 생활을 영유하다가 문득 내가 가게 될 학교를 잘 모른다는 생각에 검색 포털사이트에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를 검색하니 08들의 클럽이 있었다. 공지사항에 떠있는 정기모임 알림! 신나는 마음으로 클릭했지만 하루 늦게 확인해서 갈 수가 없었다.

아쉬운 마음으로 기다린 바 O.T날이 되어서야 새벽 첫차를 타고 서울로 갈 수 있었다. 벌써 서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장장 4시간 30분의 여정을 마치고 도착해서 대충 본 서울에는 멋쟁이 밖에 보이지 않아서 온몸 가득 풍기는 촌티를 뼈마디 사이사이로 느끼며 '역시 서울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O.T날에 처음으로 우리 과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대학을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 집안 어른들께서 서울 사람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고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잔뜩 긴장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그런지 긴장감 때문에 그 날은 동기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며칠 뒤에 있는 영어시험 날도 어김없이 여섯 시 첫차를 타고 서울로 달려갔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공기가 너무 탁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생판 모르는 도시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조금 두려워졌다. 이번에는 얼굴을 좀 익혀보려고 예비학교 뒤풀이에 참여했다. 그 날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아이들이 O.T후기를 보고 자꾸 "상혁아, 상혁아" 하는데 정말 소름이 온 몸에 돋았다. 특히 남자들이 그렇게 부르니깐 정말 적응이 안 돼서 정신이 피폐해졌다.

뒤풀이를 시작하니 선배님들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여자 선배님들이 다들 예쁘셔서 포항 친구들에게 바로 자랑했다. 부러워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서울에 오길 백 번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윽고 태진 선배님과 현권 선배님이 오셔서 간단한 소개 후에 술자리게임을 하는데 3·6·9 게임 말고는 머리털 나고 처음 해보는 게임인지라 몇 번이나 연거푸 마시고 말았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예비학교 뒤풀이 때의 기억은 태진 선배님의 남자다운 호탕한 웃음소리와 현권 선배님의 모르는 게임은 마시면서 배우라는 말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게임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나는, 쉬고 싶어서 가장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다. 그러나 그 곳은 고 학번 선배님들의 테이블. 그 자리에서 서운 선배님과 지남 선배님, 동수 선배님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동수 선배님이 나보고 선배님이냐고 물으셔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 날은 잘 곳이 없어서 홍성현 선배님과 찜질방에서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자취방을 구해서 살다가 며칠 후에 새터에 가서 동기들과 거의 처음으로 어울렸는데 그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어울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던 서울 사람에 대한 편견들이 없어졌다. 그저 촌사람의 불분명한 경계심이였다.

과 생활을 할수록 술을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지정인들은 나에게 있어 모두 다 좋은 사람이고, 좋은 선배님이고, 좋은 친구들인 것 같다(특히 술을 마시면 더덕). 아직 5월이고 서로가 알고 지낸 지 3개월가량 밖에 안 되지만 그 동안에 지정인들에 대해 확신을 했고, 그 확신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작지 않은 인연의 연속인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해준 하늘에 감사한다.

추억, 그 안의 우리들

허지영 (지식정보학부 07학번)

♪ 연합모꼬지 ☺



우리의 강준애 교수님^^



절대음감 어렵네~



우리의 회장님^^



지정이 온대!



노! 마진입니다~



유후~ 즐거운 MT



지정의 년남, 년녀^^



고음불가 짱이에요!



다 같이 치~즈!

♫ 인대체전 ☺



지정과 만세~ 만세~



지정과 만세~ 만세~



정병수 학우의 골!골!골!

내 공을
받아라
!!!!!!!



영차~영차~힘내요 지정!



거기 발 걸린 사람은 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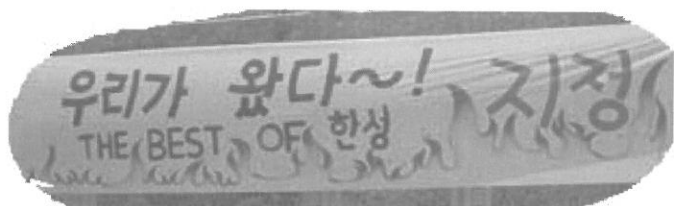
0% 이쁜 여학우들^^



수고하닌 기획단장님과
0% 정다명 학우^^



“부끄러워요~”
0% 나승재 학우의 여장투혼!



우리가 왔다~! 지정!



지정은 족구의 1인자!

왼발~
오른발~



♫ 대동제 ☺



신나는 마임~ 들썩들썩~



미친소는
물러가라



전의 전쟁!



3등 축하해요!



주점에 와주신 선배님들^^



저희가 요리사랍니다!



동전을 던져봅시다!



저희 교복 어때요?



Kissing
you, baby~



하나, 둘, 셋! 찹쌀!



시간 내어 와주신 95학번
신영기 선배님 감사합니다^^



포춘쿠키
나주세요~



함께해주신 선배님들^^



수고한08배내기들^^

지정과의 뿌리를 만나다 학술 편집부 동문회 「OB모임」

황인영 (지식정보학부 07학번)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계신 졸업생 선배님들을 뵈 수 있다는 마음에 일주일 전부터 설렘과 떨림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나였다. 2008년 3월 15일, 오늘이 그 날이라고 생각하니, '혹시나 실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반과 우리 과의 동문선배들을 동기들보다도 먼저 알게 된다는 약간의 욕심 섞인 자부심 반만이 있었다.

OB모임이 우리 과 동문모임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학술편집부(지금의 편집부)' 모임이다. 그렇기에 나에게 좀 더 의미가 있었다. 학술편집부가 80년대부터 존재하였으나 대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소멸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06년도에 '편집부'로 창설이 되면서 다시 '학술편집부'의 역사를 잇게 된 것이다. 편집부가 창설된 06년도에 마침 동문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추억을 회상하고자 학회실에 들르신 동문선배님께서 학회조직도를 보고 '편집부'를 발견하셨고, 먼저 연락을 해 주신 것이다. 그러한 인연으로 동문선배님들과 재학생의 만남이 발기된 것이다.

동문선배님들과의 첫 대면을 하게 된 날의 재학생은 나를 포함해 유리선배와 경선선배 셋이었다. 처음에 우리가 간 곳은, 곧 복원 될 성북천을 끼고 자리 잡아 있는 어느 부대찌개 집이었다. 88학번 선배님부터 계신 자리라고 미리 전해들은 나는, 굉장히 위엄 있고 격식 있는 자리라서 예의바르게 행동하려고 생각한 나머지 많이 긴장해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나의 긴장감도 눈 녹듯 사라졌다. 단순히 처음 보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닌, 한성대 지식정보학부(문헌정보학과)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있는, 선후배의 만남이라는 것이 나에게 참 좋지 않았나 싶다.

OB모임 선배님들 중에는 전공 쪽으로 현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다. 국회도서관, 사서교사, 대학교 사서, 어린이도서관사서 등의 현직을 맡고 계셨는데 그만큼 전공을 사랑하셨고, 그 쪽으로 성공하신 선배님들이기에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도 이 날 모임에 나오신 선배님들 모두가 나에게 위상 그 자체였다.

동문선배님들께서는 나에게 재미있는 여러 이야깃거리들을 들려주셨다. 그 당시의 학교모습, 학과 내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 집행부의 역사, 교수님들 이야기는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었다. 10년에서 20년 전의 학교나 학과 내의 이야기를 이런 자리 아니면 어디서 들어 볼 수 있을까? 그 외에도 전공 관련 이야기나 취업 전망, 실세 등의 이야기도 해주셨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학과 동문회가 타대학교와 달리 활성화가 안 돼있다는 것이었다. 나만 하더라도 졸업생 선배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여태껏 재학생선배만 알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동문선배들이 그 점을 많이 아쉬워함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이 날도 동문선배님들이 대여섯 분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열다섯 분 정도가 오셨다. 제주도에서 재학생후배를 보러 올라오신 선배도 있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연계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내가 졸업해서도 모임에 참여하여 후배들을 끌어 줄 수 있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졸업생선배들과의 술이 한잔, 두잔 오고가면서 지정과의 핏줄이 강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서로 만나지 못하던 상류의 두 물줄기가 중류에서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하나가 된 중류의 물줄기가 좀 더 깊어지고 굳건해져서 큰 강이 되듯, 우리 과 동문모임도 더욱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재학생들과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나는 편집부(학술편집부)가 영원히 우리학과와 동반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나아갈 것을 밝게 전망한다.



재학생들의 야심찬 프로젝트 현직에 계시는 선배님을 찾아가다

이다나, 장한별 (지식정보학부 07학번)

저희 편집부가 8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사실을 아시나요? 98년부터 8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긴 하지만 그전부터 학술편집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오던 많은 선배님들이 아직까지도 OB모임을 가지면서 친목을 다지고 계신데요. 이번에 저희 편집부 부원들이 편집부 대선배님이신 88학번 진해동 선배님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SBS에 입사하셔서 현재 영상사업팀 팀장님으로 계신 진해동 선배님을 만나기 위해 07학번 황인영, 허지영, 이다나, 장한별, 김남식 학우가 직접 목동 SBS를 찾아갔습니다. 꽤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간 SBS 22층에서 선배님은 우리를 직접 반갑게 맞아주셨고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학교 다니실 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1. 처음에 입사하실 때는 SBS자료실로 입사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을 하셨나요?

SBS에는 정보자료실이라고 있는데 그 곳에 있는 자료는 대부분이 다 비도서 자료야.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거의 도서 자료 분류에 관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처럼 일을 시작했지.

자료실에서 하는 내가 했던 일은 방송국의 자료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거의가 다 방송비디오라고 할 수 있지. 그 비디오의 내용을 비디오 겹표지만 보고는 알 수 없겠지? 그래서 비디오 속 내용을 다른 방송에서 필요로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일이었어. 검색만으로 찾을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영상을 사러 오는 돈을 주고 사러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영상을 판매하는 일도 맡았어. 덕분에 지금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거지.

질문2.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내가 있는 곳은 영상사업팀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주로 SBS의 드라마나 영화 등을 디지털 콘텐츠화 시켜서 국내나 해외에 파는 일을 해. 작게는 SBS의 홈페이지에서 드라마 다시보기를 서비스 하는 것에서 크게는 해외에 SBS의 드라마를 수출하는 일이지. 뮤직DVD도 만들고 있고 영화나 게임도 만들어서 팔고 있어.

특히 요즘엔 하나TV나 메가TV와 같은 곳에 SBS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해외, 싱가포르나 대만, 일본 같은 곳에도 팔고 있지. 일본과 대만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지.

질문3. 저희과는 문헌정보학과 잡아요. 취업문제도 그렇고 아무래도 사서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학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나 문헌정보학 쪽에 있어서 앞으로 사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같은 경우처럼 처음엔 전공을 살려서 자료실로 들어왔지만 나중엔 꼭 그것만 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 요즘은 기업체의 자료실도 도서관보다는 비도서쪽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자나 디지털 쪽으로. 솔직히 말하면 사서는 더 이상 책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모든 기술이 디지털화 되어있고 바코드만 붙여서 정리하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이제 사서도 참고봉사서

비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 해야되. 정보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서가 할 일이야.

질문4. 선배님도 학교 다니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건 꼭 해볼걸.' 또는 '이것은 해보니 참 좋았다.' 하는 것이 있으실 텐데요. 후배들에게 학교 다닐 때 '이것만은 꼭 해봐라'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난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관한 알바라면 거의 다 해본 것 같아.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건 그런 알바경험이 참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찍 겪은 사회생활이 나중에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돈도 모을 수 있고. 그렇게 사회경험을 쌓으면서 모은 돈으로 한번쯤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내 등록금은 내가 내보는 거지.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하나는 어학연수를 가보라는 거야. 어학연수가 안 되면 외국어 하나라도 꼭 익혀둘 것. 요즘에 토익, 토플 안보는 곳이 어디 있지? 기회가 된다면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으로 가면 되는 거고 기회가 안 되면 내가 노력해서 영어든 일본어든 내가 하나쯤은 내세울만한 외국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사회에 나와서 하면 늦어. 학교 다니면서 외국어 하나쯤은 필수로 배워 두는 것이 좋아.

간단한 질문이 끝난 후 근처 고깃집에서 진해동 선배님과 직장 동료 두 분과 저희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2차로 이어진 호프집에서는 95학번 신성기 선배님도 합석하셔서 무척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밥과 술을 먹으면서 저희는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배님의 큰 호의에 저희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한참이나 어린 후배들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아끼지 않으셨던 선배님을 볼 수 있어 무척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용남 교수님의 고별강연을 듣고

황인영 (지식정보학부 07학번)

지난 2008년 5월 27일 14시경에 한성대 미래관 DLC에서 '우리 도서관운동의 어제와 오늘, 엄대섭 선생의 운동 전략 그리고 빛과 그림자' 라는 주제로 이용남 교수님의 고별강연이 열렸다.

나는 사실 이용남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에도 가끔씩 도서관운동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셨고, 현재까지도 작은도서관(마을문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 고별강연의 주제 또한 그분의 은사님의 이야기와 도서관운동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감하고 있었다. 그와 더불어 이용남 교수님의 지극한 작은도서관 사랑과 실천에대해서 감히 누가 따라올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별강연 내용은 엄대섭 선생의 도서관 운동 양태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교수님의 마지막 강연이라고 의식하여, 그분의 백옥 같은 말씀을 더욱 주의 깊게 한 구절, 한구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보다 연륜의 고귀함과 대단함이 느껴졌고, 강의에 대한 교수님의 열정과 정성이 내 심장을 고동치게 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또한 강연 중간 중간에 해 주신, 엄대섭 선생의 가난했던 어린시절이야기와 그 분의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 엄대섭 선생의 계란과 보자기론, 이용남 교수님의 청년시절 이야기, 마을금고운동이야기는 교수님께서 유쾌하게 풀어주셨지만, 나 자신까지 성찰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이야기였다.

그 당시의 도서관 현장 이야기를 내가 감히 어느 분에게 들을 수 있을까?

이용남 교수님께서 엄대섭 선생에게 물려받으신 도서관 사상, 책과 사람에 대한 사랑, 도서관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한성대 지식정보학부생에게까지 크나큰 귀감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용남 교수님은 우리학과 학부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수님이시자, 도서관학의 대부이며, 지혜와 덕의 스승이라고 칭하여도 부족 할 것이다.

이날 나는 교수님의 모습을 일초라도 더 가슴에 담아두려고 맨 앞에 앉아서 강의를 경청하였는데, 교수님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면서 이날을 위해 교수님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 오셨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만큼 한성대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교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지극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사실은 아마 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식정보학부생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감사드릴 일인가. 앞에서 보기에 아직 정정하시고 열의가 넘쳐보이시는데 곧 퇴임을 하신다고 생각하니 역시나 제자인 입장에서 서운함은 감출 수가 없었다.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고, 몇몇 학생들과 지인 분들이 교수님께 꽃다발을 안겨드렸다. 나 또한 기회를 놓칠세라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다. 교수님께 받은 값진 가르침은 너무도 많은데 내가 교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드린다는 말 밖에 없었다. 오늘도 역시나 이용남 교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인생을 조망하는 시각이 한층 넓어졌을 것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나 자신이 이용남 교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에 부듯하였고, 또한 내가 존경하는 은사님이 이용남 교수님이라는 사실에 참 기뻐다. 이용남 교수님은 끝으로 "한성대생이여 자부심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 우리는 자부심 있는 한성대생으로써 교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학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부심 더 넓은 세계로 그녀가 갑니다

김영상(지식정보학부 08학번)

§ 한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

2008년 4월 8일, 한국 최초의 우주생했다. 이로써 시대에 진입할 수 판을 마련하게 된 과학의 날을 맞아



드디어 인이 탄생했다. 우주기술이 있는 발 것이다. 우주인 후보 접수가 이소연 씨(29)의 모습. 시작된 날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06년 4월 21일이었다. 총 3만 6206여명의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18000:1의 경쟁률을 뚫고 고산 씨와 이소연 씨가 우주인 후보로 선정되었다. 처음에는 훈련에서 보다 좋은 모습을 보인 고산 씨가 한국 첫 우주인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우주선 발사를 한 달여 정도 앞두고 고산 씨가 외부 반출이 금지된 훈련교재를 한국으로 가져왔다가 반납하는 바람에 러시아 연방우주청에서 우주인을 이소연 씨로 교체해줄 것을 한국에 요청해왔다. 결국 최종 우주인은 이소연 씨로 확정되었고 안타깝게도 고산 씨는 예비우주인으로 남게 되었다.

§ 이소연 씨에 대해서.

1978년 4월 27일에 광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키 164cm에 몸무게 58kg이며, 영화감상과 태권도를 취미로 삼고 있다. 과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시스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인으로 소속되어있다.

§ 1년간의 혹독한 훈련.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신체조절능력이나, 기초과학기술, 언어 등을 습득하는 이 과정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GCTC)에서 이루어진 이 훈련들은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해가며 실시되었다. 우주인들은 무중력 적응 훈련, 체력훈련, 계기판 작동 훈련, 도킹시스템의 이해 등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며 더욱 완벽한 우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우주선이 불시착할 경우를 대비하는 생존훈련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흑해나 만년설이 쌓여있는 높은 산이나 늪지대에서 행해졌다.

§ 11일간의 우주생활.

2008년 4월 8일 오후 8시 16분 35초, 대한민국 첫 우주인 이소연 씨는 함께 갈 우주인들과 함께 소유즈호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를 향해 힘차게 날아갔다. 지구를 떠난지 2일후에 소유즈호는 ISS와 도킹을 하고 8일간의 과학실험 임무를 수행했다. ISS에 체류하는 8일 동안 이소연 씨는 우주용 펜을 테스트 해보고, 초파리의 중력반응 및 노화 유전자 탐색, 식물 발아 생장 및 변이 관찰 등 우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실험들을 했다. 2008년 4월 19일 모든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ISS와 도킹을 해제하고, 지구로의 귀환을 시도한다.

§ 지구로의 귀환.

이소연 씨는 한국시각으로 2008년 4월 19일 5시 38분 경에 소유즈 TMA-11호를 타고 선장 유리 말렌첸코(46·러시아), 비행엔지니어 페기 윗슨(47·미국)과 함께 카자흐스탄 북쪽 초 귀환선에서 꺼내는 모습. 원지대로 11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다. 지구귀환에 동행한 일행들 중에서 선장인 유리 말렌첸코는 러시아 연방우주청 소속으로서, 총 4회의 우주비행을 했으며, 2003년에는 ISS에서 최초로 결혼식을 올린 남성 우주인이다. 그리고 비행엔지니어인 페기 윗슨은 미국항공우주국(NASA) 소속으로, ISS 최초 여성 선장이었고 184일간의 장기 우주비행으로 가장 오래 머문 기록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우선 귀환선이 대기권에 진입 하면 자동으로 지상과의 각도를 약 30도 정도



베이징올림픽에서 뒤흔들린 티베트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이 술 (지식정보학부 08학번)



2008년 8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역사적인 베이징 올림픽이 막을 연다. 개최지인 중국에서는 이번 올림픽의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국제적인 행사에 나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에 걸고 있는 기대도 컸으며, 이슈화된 사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되었다. 올림픽 성화 봉송문제, 티베트 시위사태 등이 그 대상들이었다.

최근 중국에서는 20년만의 최대 시위사태로 번진 티베트 사태가 불거졌다. 특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공식출범

전날 시작된 이번 시위는 곧바로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티베트인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인 시위로 확산됐고 미국 등 국제사회도 일제히 중국정부를 비난하고 나서 중국 정부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시위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사회에 명실상부한 세계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중국 내 티베트 시위를 제재해왔다. 하지만 시위는 점차 전 세계적으로 번졌고, 티베트인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정당하지 못한 진압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이번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더불어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을 진행하는 곳곳에서 인권단체와 티베트인, 해외 거주 중국인과의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성화 봉송 행사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과 국내 인권단체와의 마찰이 있었다. 27일 오후 3시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에서 성화 봉송 행사를 하던 중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항의하는 한국인 시위대에 중국인들이 흉기를 던지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수 명의 한국인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그날 6000여명의 중국인들은 무리지어 다니면서 '티베트 자유'를 외치는 반 중국 시위대에 물병을 던지며 위협했다. 급기야 호텔 안까지 쫓아가다 이를 저지하는 한국 경찰을 폭행하고 취재기자에게 각목을 던지는 추태를 벌였다. 경찰은 성화 봉송 행사를 보호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중국인 시위대의 무법천지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했다. 후에 정부에서는 인터넷에 누리꾼들이 올린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성화 봉송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같이 있던 중국인들과 함께 49살 박 모 씨를 때린 혐의 등 직접적인 폭력에 가담한 유학생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한데다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중국 정부에서는 뻔뻔한 대응으로 맞서고만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충돌 사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기는커녕 "정의로운 일"이라며 충돌사태와 관련된 유학생들을 두둔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최근에 중국에서도 세계의 보이콧을 의식해 티베트에 유화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티베트는 여전히 중국의 것이라는 논리만을 내세우며 양국간의 의견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는 중국이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국은 지하에 있는 덩샤오핑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더욱 자제하고 주변국과의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는 자세를 보이는,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지해야 하는데 낙하산을 펴기 전에 거의 수직에 가깝게 하강하면서 땅에 꽂혔다. 이 때문에 귀환선은 예상 착륙지점보다 서쪽으로 420km쯤 떨어진 곳에 착륙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착륙 전 과정이 자동 제어되지만 이번과 같은 착륙이 이뤄진 것은 귀환 모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이소연 씨 귀국 후의 상반된 반응들.

이소연씨가 우주비행을 마치고 귀국한뒤 인터뷰도 하고 재활치료도 받으며 지내고 있는 요즘 국민들에게서는 두가지 상반된 반응들을 볼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첫 우주인이 되어서 자랑스럽다는 반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민들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이소연씨 우주관광만 시켜줬다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전자는 드디어 우리나라도 우주산업에 발을 들여 놓아서 우주개발에 힘쓸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후자는 이소연씨가 가서 한게 뭐있냐, 국비로 우주관광을 다녀왔다, 우주인이 아니고 참관인이다 등등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

우리나라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36번째 우주인 배출국가가 되었다. 지금까지 러시아 101명, 미국 304명, 아프가니스탄 1명 등 여러 나라에서 우주인을 배출했는데, 대한민국도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라남도 고흥 외나로도 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에서 로켓 발사대를 설치하

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해서 성공한다면, 세계 9번째로 성공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 우주생활에 대한 궁금증들.

· 우주에서의 잠은?

-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면 등등 떠다니다가 벽이나 천장에 부딪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관처럼 생긴 1인용 침실에 들어가서 몸을 고정하고 잠을 청한다.

· 우주에서 식사는?

- 음식이 공중에 노출되면 떠다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먹어야한다. 물론 우주왕복선이나 우주정거장에는 장기체류를 위해 음식을 조리 할 수 있는 오븐이 있으며,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포장이 된다.

· 우주에서 용변은?

- 우주정거장에는 진공청소기처럼 작동 되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은 불일 을 본 후 레버를 당기면 팬이 돌아가면서 강력한 공기의 힘으로 배설물을 빨아들여 용기에 저장시킨다. 하지만, 우주유영을 하거나 이착륙을 할 때는 우주복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저귀를 착용한다.

· 우주에서의 건강상태는?

- 지상에서는 중력 때문에 다리에 피가 몰리고 심장이 다리에 몰리는 피를 뇌로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 피가 다리로부터 몰리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위로 쏠리게 되고 얼굴이 붓게 된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어디한번 따져보자

하늘빛 (지식정보학부 08학번)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문에 굉장히 뜨겁다. 관련 집회가 일어나고, 신문의 일면을 차지하고, 뉴스에서도 쉴 새 없이 보도가 된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1.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장점은?

한우 값은 굉장히 비싸다. 하지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싸게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의하여 한우 판매업자들이 한우를 싸게 팔 수 있다.

2. 미국산 쇠고기수입,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광우병문제와 한우시장의 위기 문제이다. 광우병의 경우 원래 소가 걸리는 질병이지만 문제는 광우병을 걸린 소를 섭취할 경우 인간도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에 걸리는 '인간 광우병' 이 문제가 되며, 치사율 100%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 한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하므로 국내 한우농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광우병 문제와 한우시장의 위기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3. 광우병 문제

원래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라는 조건하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바뀐 규정에 의해 30개월 이상의 소도 광우병 위험부위를 제거한 후에 수입한다고 한다. 광우병은 30개월 이상의 소에게 99.5 퍼센트 발병하는 질병이다. 30개월 미만에 한해서는 거의 위험이 없는 것이다. 30개월 이상의 경우에도 뇌, 눈, 두개골, 척추, 편도 등 위험부위만 제거하면 마치 복어의 독을 제거하고 먹는 것과 같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도축장에서 이러한 '위험부위' 를 대충 제거하고 판매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실수로 30개월 이상의 소가 광우병 위험부위가 제거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될 경우, 치명적이다.

광우병의 경우 프리온 이라는 단백질의 변형으로 생기는 질병으로서, 뇌에 구멍이 생겨 갑자기 미친 듯이 포악해지고 정신이상과 거동불안, 그리고 난폭해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다. 인간 광우병의 경우에도 증세는 비슷하다.

하지만, 광우병의 감염경로가 공기는 아니니,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역시 미국산쇠고기의 유입은 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밖에 없다.

4. 그렇다면 한우에 대한 대책은?

한우에 대한 대책은 가격인하가 일단 가장 큰 답이다. 가격경쟁력에서 일단 밀리기 때문에, 지금의 유통과정에서 붙는 마진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한우농가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우 인증제(소 꼬리 DNA 판단에 의해 한우인지 아닌지를 정부에서 검증하는 방법), 도축세 폐지, 한우 마리당 10~20만원의 품질고급장려금 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런 제도들이 잘 지켜진다면, 한우농가에 큰 타격이 오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 같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인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이지만, 정말 개방을 해야 한다면 정부에서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한우 농가를 지원해줌으로서 현명하게 극복해나갔으면 한다.

승례문의 비극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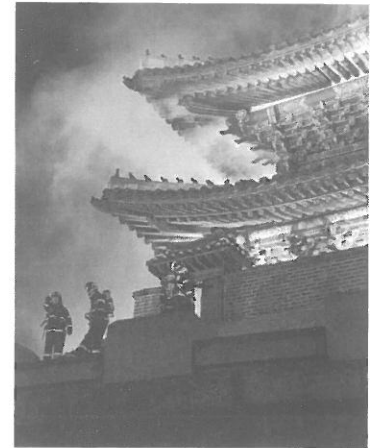
허지영 (지식정보학부 07학번)

설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주말인 2008년 2월 10일, 우리나라의 국보1호인 승례문이 50대 한 남성에 의해 전소되어 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밤 9시쯤 시작된 화마는 수많은 소방차가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쯤 결국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승례문을 무너뜨리고야 말았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던 승례문이, 한 순간의 방화로 인해 우리의 기억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뉴스속보를 통해 즉시 전국에 퍼지게 되었고, 이에 온 국민들은 승례문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음 날, 갑작스레 승례문에 불이 나게 된 원인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날 검거된 승례문 방화의 범인은 60대의 남성으로, 토지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불을 질렀다고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찢터미로 만들어 버린 어이없는 행동에 수많은 질타와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도록 방관한 국가 또한 심판대 위에 올라섰다. 경비가 허술하고 접근이 쉬워 승례문을 방화 대상으로 삼았다는 범인의 자백과 허술했던 화재 시스템, 진압과정 등은 이번 승례문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나, 문화재청과 서울시청은 은 승례문 복구에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국민 성금을 걷어 승례문을 복구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또한 질타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승례문 화재 사건의 원인을 무조건 범인 한 사람이나 국가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다. 이번 사건으로 승례문이 이슈가 되어 떠오르기 전까지 국민의 몇 프로나 우리 문화재에 대해 애정을 갖고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승례문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 그 소중함을 모르고 당연시하게 여겨왔었다. 결국 항상 일이 벌어진 후에야 관심을 갖고 잘못을 들춰내는 국민들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이다.

600년의 세월동안 우리와 함께한 승례문이 방화범과 국가, 국민 모두의 잘못에 의해 희생되었다. 이젠 더 이상 한국이 한국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승례문 화재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를 철저히 보호하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갖는다면, 또 다시 이런 비극은 없으리라 확신한다.





봄

과 함께하는 책과 문화의 공간, "파주 출판 단지 - 헤이리 예술 마을"

이현진, 임소영 (지식정보학부 08학번)

우리는 당일치기 여행으로 계획을 잡고 파주 출판 단지와 헤이리 마을에 다녀왔다. 두 곳 다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만큼 볼거리 많기로 한창 유명한 곳이다. 파주 출판단지는 파주 자유로 변에 세워지는 출판문화공동체이며, 헤이리 마을은 다양한 문화장르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문화예술마을이다. 조금 먼 듯하지만, 다행히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곳까지 갈 수 있었다. 서울 근교로 간단한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면, 이 곳 파주 출판단지와 헤이리 마을에 한 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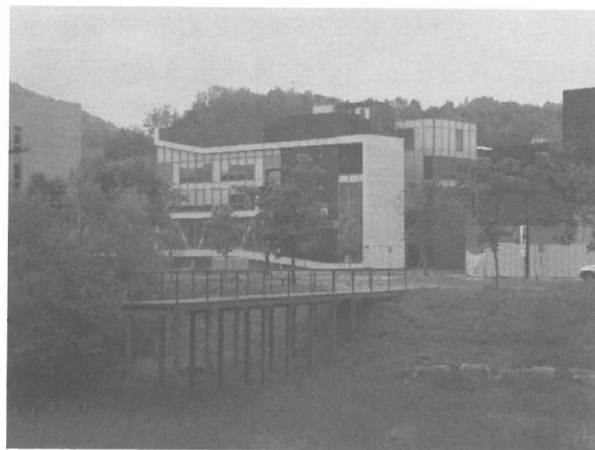
서울역에서 금촌역으로 가는 기차를 이용한 후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1-2, 1-3 (마을버스)	금촌역 - 파주경찰서 - 파주시 맥금동 - 영어마을 - <u>헤이리</u> - 파주경찰서 - 금촌역
합정역 2번 출구에서 버스를 이용	
200 (좌석버스)	파주시 맥금동 - 영어마을 - <u>헤이리</u> - <u>파주출판단지</u> - 대화역 - 백석역 - 합정역

【 파주 출판 단지 】

파주 출판단지는, '출판단지' 라는 이름답게 정말 많은 출판사가 자리 잡고 있다. 유명한 출판사부터 생소한 출판사까지 정말 많은 출판사가 밀집해있었다. 최근에 만들어진 도로도 넓고 정리도 잘 되어있어서 길 찾기가 쉬웠다. 또 건물들은 하나의 조형물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름답고 깔끔해서, 건축 디자인에 관심이나 흥미가 있다면 한번쯤 견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출판사 서점 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파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는 지도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화기' 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께 도화기라는 기계로 지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출판사 서점을 들락거리며 많은 책들을 구경하는 사이 한 시간이 훌쩍 지났고, 그제야 거리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런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있었다. 최고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어린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코너와, 수업시간에 영상으로만 보았던 이동식 도서관도 볼 수 있었다.



<파주 출판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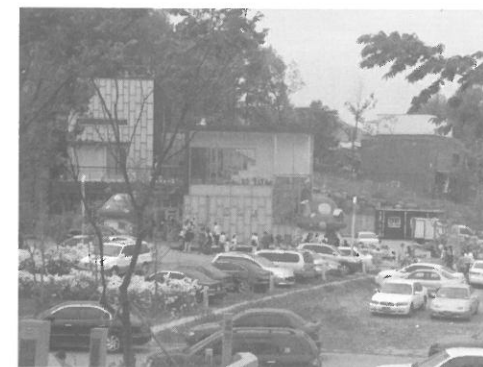


<네이버에서 지원한 이동식 도서관>



<어린이날을 맞아 진행되고 있는 행사>

【 헤이리 예술 마을 】



<헤이리 예술 마을 4번 입구>



<작은 무대에서 벌어진 공연>

1997년 발족된 헤이리는 15만평에 작가, 미술인, 영화인, 건축가, 음악가 등 370여명의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집과 작업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등 문화 예술 공간을 짓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예술마을에는 다양한 콘셉트의 갤러리와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만화의 3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만화 박물관, 화폐의 변천사를 전시한 화폐 박물관과 아프리카의 전통 악기를 볼 수 있는 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다. 박물관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소규모의 개인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남자 두 분이 기타와 타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고 계셨다. 기대하지 않았던 퍼포먼스에 사람들도, 우리도 잠시 발걸음 멈추고 연주를 감상했다.

예술 마을은 규모도 크고 볼거리가 많은 곳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갤러리와 박물관이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탓에 들어갈 때마다 각각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평균 3000~5000원 정도.

※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 <http://www.pajubookcity.org/>

※ 헤이리 예술 마을 - <http://www.heyri.net/>

배낭 맨 당돌한 지정인이 나서다

원초룡 (지식정보학부 07학번)

2007년 7월, 나는 우리와 정반대의 나라 서유럽으로 떠났다.

항상 " 처음 "이란 단어는, 날 새롭게 만들어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두근두근 기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무언가 또 시작될 때 인가보다. 첫날 대한항공 로마행 비행기를 타고, 나는 출발했다.

이탈리아

바티칸시국 : 교황님의 나라, 옛 시대의 추억에 잠기다.

세계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지닌 나라.

바티칸 시국은 로마 안에 있는 한 나라이다. 인구가 9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교황님의 나라답게 그 인구 중에서도 대다수가 성직자라고 한다.

바티칸 시국에서 가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바삐 움직여야 한다. 기본 2~3시간이 기다려서 들어가는 곳이 바티칸 시국이란다. 인파가 엄청났지만, 나는 뜨거운 이탈리아의 햇빛을 즐기며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었다. 로마의 날씨는 웬만 하면 햇빛이 강하다. 그냥 햇빛을 쬐게 된다면 너무 덥지만, 그늘로 가지만 하면 만사 ok! 그래도, 로마의 날씨는 우리나라 여름기후와는 다르게 습도가 높지 않아서 끈적끈적함이 없다. 이런 것이 지중해의 날씨인가? 이러저러 생각을 하다가 결국 운이 좋게 1시간 20분 정도를 기다리고 바티칸 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바티칸 시국으로 통과하기 전에는 짐과 몸 검사를 하는 검사대를 통과하여야 했다. 공항에서 검색하듯이 말이다. 생각해보면 고대의 정말 소중한 유적인 만큼 삼엄한 경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았다.

바티칸 시국으로 들어서자 뽀뽀 정원을 볼 수 있었다. 이곳에는 바티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곳곳에 가짜 그림들(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의 대작들)을 전시해 놓고 현지 가이드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 만약 배낭여행 중이었다면, 내가 스스로 공부하여 가야했을 것이다. 아니면, 슬쩍 한국에서 온 패키지 팀에 끼어들어 설명을 들어도 무방할 것이다. 박물관 안의 바벨베데레궁의 뜰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그리스 로마시대의 조각상을 볼 수 있다. 라오콘, 트로이목마, 포세이돈 신에 대한 배신에 대가로 아들 둘이 죽는 최악의 사태, 인간 남성의 가장 아름다운 상반신을 표현한 조각품 토루소 등, 미술 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을 지나면, 큰 복도를 지나게 되는데, 좌 우 벽은 16세기 이탈리아의 지도들로 꾸며져 있었다. 여기서 관람하는 많은 인파에 밀리고 밀리다 보면 할 수 없이 위에 천정 그림으로 눈이 향해진다. 사진 같은 그림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너무나도 길고 아름다운 그림들. 그리고 드디어 걷고 걸어 '시스티나 성당'에 도착했다. 시스티나 성당에서는 모자를 써도 안되며, 나시 같은 소매의 옷이나 슬리퍼를 신어서도 안된다.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다.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도 촬영도 금지되어 있다. 그 위대한 그림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이 내 눈 앞에 펼쳐졌다. 놀라웠다. 미켈란젤로가 그토록 열의를 다했던 그림들. 미켈란젤로가 표현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그 안에는 다 존재하였다.



베네치아

: 물의 도시 베네치아

인공 섬과 자연섬으로 만들어진 베네치아. 해상무역의 최고라고 불리는 곳이다.

선착장 베네치아에서 배를 타고 베네치아까지 들어가야 한다.

베네치아에는 최고의 유리세공과 크리스탈로 유명하다. 이 곳에 가면 유명한 상점들이 많고 또, 유리세공을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베네치아의 유리세공 기술의 세계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장인정신이 지금까지 전승된다니 놀라웠다.

그리고 베네치아에는 오래전부터 가면축제도 열리고 있어 정말 여러가지의 다양하고 독특한 가면들이 간이상점에 진열되어 있었다. 예로부터 가면무도회가 많이 열리던 유럽사회를 보며 알 수 있듯이 크기도 아주 다양하다.

베네치아에 가면 꼭 타봐야 하는 것은 바로 곤돌라 배다.



배를 타면 뱃사공에 이끌려 건물 곳곳을 누비게 되는데, 흔들리는 배와 함께 과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나는 특유의 풍미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베네치아의 수상도시와 배타기의 즐거움이 너무나 행복했고, 물 내음이 참 좋았다. 몇 백년 전에 이렇게 물위에 도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대단했다.

내가 이 여행에서 아쉬웠던 것은 지식이 전혀 없이 간 것, 조금이라도 건축, 미술, 성당, 역사, 성 등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공부하지 않고 온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다. 물론,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지만 아주 간략한 설명을 할 뿐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알지 못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정말 급하게 내가 준비하지 않고 왔구나" 하는 생각에, 다음 번 여행에선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나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하여 난 음식, 사람들의 모습, 가치관 등 듣고 보고 느끼며 배울 수 있었다. 그들의 문화 생활 속에 간접적으로 들어가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들 음식을 먹으며 그들 문화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 값진 경험을 통하여 그 곳에 다시 갈 수 있다는 믿음과 혼자 다시 올 거라는 자신감을 주었다. 여행이란 사람을 조금이나마 성장하게 해주고, 일상 생활에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며,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좋은 성장제였다.

그리고 패키지 여행을 통하여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하며 나는 행복과 즐거움, 여유를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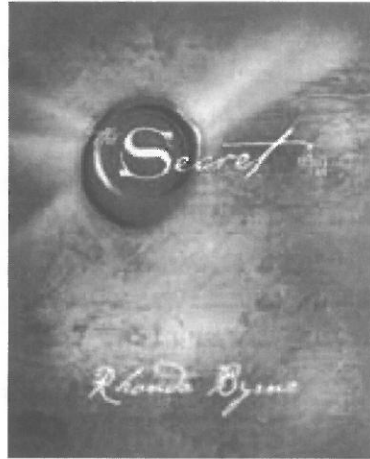
이제 나는 말 할 수 있다.
여행은 배움이고, 또 하나의 성장이라고.
그리고
나는 또 여행을 시작 할 것이다.



서점에서 엿보는 대중의 선택 인기서적 Number 3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장수진 (지식정보학부 08학번)

No.1 시크릿 - 론다 번



성공, 국어사전에 따르면 목적인 바를 이름이라는 뜻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바란다. 하지만, 성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을 아니다. 『시크릿』은 성공한 1%만 아는 비밀을 이야기 한다. 플라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아인슈타인 등 역사상 위대했던 모든 사상가와 과학자, 개척자와 창조자들도 이 오래된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제 최초로 '비밀'의 모든 조각을 하나로 묶어,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마법 같은 법칙을 공개한다. 이 책에서 독자는 돈, 건강, 인간관계, 행복 등 인생의 모든 면에서 '비밀'을 활용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긍정적인 사실들만 쓰여 있는 것만은 아닌가? '시크릿'을 읽어 본 후 내가 느낀 점은 이렇다.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현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만큼의 희망을 전달해

주는 희망의 지침서구나'

이 책이 전 세계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러한 이유에 있던 것이었다. 전체적인 내용의 방향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다. 허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경험담이나 실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므로 독자들에게 좀 더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 같다. 이 책의 저자 론다 번이 저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강한 신념과 긍정적인 생각은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2002월드컵 때 한국인들이 '꿈은 이루어진다.'와 같은 구호를 내 걸었던 예와 같다.

하지만 '할 수 있다.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모든 일이 마법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 결론은 한 가지 목표에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실천에 잘 옮기지 못한다. 론다 번은 자신의 저작을 통해 독자들에게 한 번 더 그러한 사실을 깨우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No.2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 할 것 이다 -공지영

최근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소설 속에 녹여낸 『즐거운 나의 집』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 공지영. 그녀가 이번에는 소설의 화자로 등장한 위령을 대상으로 쓴 편지글 형식의 산문집을 펴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공지영은 이 책 속에서 평범한 아이 엄마로서 가슴을 내밀고 대하는 딸에게 조곤조곤 자신의 인생 얘기를 들려주었다.

이 책은 공지영 작가만의 진솔한 면모를 마음껏 보여준다. 딸의 한마디에 상처받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 수영을 하겠다고 버리기만 하지 결국엔 해내지 못하는 평범한 이웃의 모습, 아무것도 하기 싫어 뒹굴거리며 좋아하는 책에 푹 빠지는 모습…….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은 작가를 좀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소설에서 화자로 등장한 공지영의 딸, 위령을 대상으로 쓴 편지글 형식을 띠고 있다.



No.3 스타일-백영옥



1억 원 고료 제4회 세계문학상 수상작!

2008년 대한민국 젊은 여성들의 열망과 욕망을 재기발랄하게 담아낸 화제작! 첫 장편소설로 1억 원 고료 제4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하며 한순간 스타로 부상한 백영옥의 『스타일』은 재기발랄하다. 쿨하고 드라마틱하다. 게다가 감각적이다.

대한민국 젊은 여성들의 일과 연애, 명품과 음식 이야기를 이보다 더 솔직하면서도 경쾌하고 세련되게 그려낸 작품은 만나기 힘들다. 통장 잔고가 없을지라도 할부로 명품 '신상'은 사야 한다. 냉장고는 음식물 쓰레기장처럼 폐기돼 있을지라도 근사한 레스토랑 요리에는 이러쿵저러쿵 까다롭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줄 알면서도 44사이즈의 스키니 진을 향한 열망을 놓지 못해 다이어트에 목숨 건다. 상사에 치고 업무에 치여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다크서클의 압박, 칙칙한 피부에 좌절하기 일쑤. 이러니 몇 년째 남자가 없는 것은 당

연하다. 어쩌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도 유부남 아니면 게이! 다이어트의 조급함보다 빠른 스피드, 연애의 간절함보다 강한 흡입력, 붉은 립스틱보다 강렬한 미스터리, 스키니 진보다 몸에 감기는 스토리, 실크 블라우스보다 사랑스런 캐릭터, 베크보다 섹시한 갈등,

샤넬 No.5보다 매혹적인 메시지...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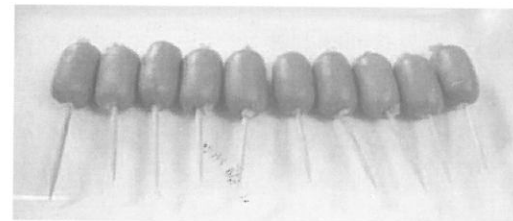
지정인의 생활정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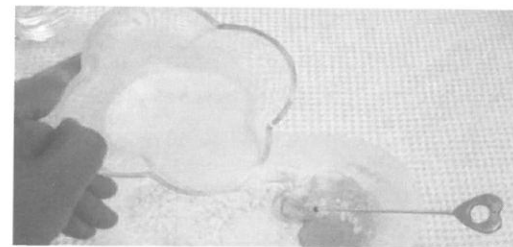
심리나(지식정보학부 08학번)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출출하다, 갑자기 학교 앞 세계제일핫도그가 먹고 싶다면!!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핫도그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재료: 적은 양으로 배 채울 수 있는 핫케이크가루, 계란 1개, 일명 줄줄이 소시지, 식용유
준비물: 집에서 놀고 있는 과일 먹을 때도 잘 안 쓰는 이쑤시개, 오목한 후라이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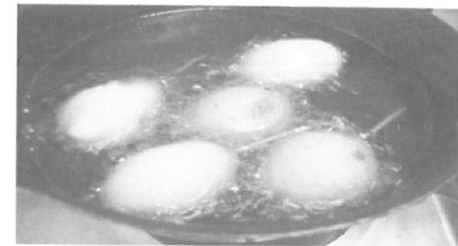
1. 소시지에 이쑤시개를 예쁘게 꼽습니다. 이때! 이쑤시개를 너무 조금만 꽃으면 반죽을 묻혀 튀길 때 빠져버리고, 너무 많이 꽃으면 반죽이 튀길 때 부풀어 손잡이 부분이 없어지니 주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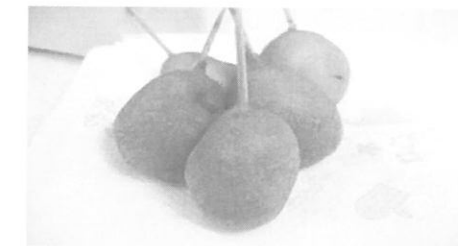
2. 핫케이크가루와 계란 한 알을 넣고 우유는 적당량을 반죽하면서 넣어줍니다. 이때 너무 묽으면 튀김옷이 흘러내려 모양잡기가 어렵고 너무 뻑뻑하면 핫도그가 하드-도그가 됩니다. 반죽 상태는 이정도! 꾸루룩도 아닌 뚱뚱도 아닌 질퍽하게 해주세요~



3. 반죽을 만드는 동안 오목한 후라이팬에 넉넉히 기름을 붓고 좀 지글지글 할 정도로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리고 이쑤시개를 꼽은 소시지를 반죽에 후루룩 돌려 반죽을 입힙니다.



4. 지글지글 끓는 기름에 반죽 입힌 소시지를 넣습니다. 기름에 넣고 0.5초 사이로 붕 떠올라야지만 예쁜 핫도그 모양이 잡힙니다. 가라앉아서 소시지 머리가 처박혀있으면 한쪽으로 찌그러진 핫도그가 됩니다.



5. 귀여운 핫도그가 완성!

그리고 자취를 할 때 꼭 필요한 생활상식을 알려드립니다!

밥을 왕창 해놔서 천천히 나눠먹고 싶다면!

자취를 하다 보면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제일 귀찮죠?

먹다 남은 밥을 1회분씩 나눠 랩이나 팩에 담아 밀폐한 뒤 냉동시키면 밥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냉장실에 넣어두면 단백질이 파괴되면서 맛을 잃는다고 하니 꼭 냉동실에 넣어주시고요, 먹을 때는 정종을 조금 부린 다음 전자렌지로 데워먹으면 맛이 원래 그대로라고 합니다.

요리하다 남은 햄과 소시지를 보관하려면!

잘라낸 자리에 식초를 묻힌 뒤 랩으로 싸두면 좋습니다. 살균효과도 있고 또 맛이 가지 않고 먹다 남은 겨자도 식초를 뿌려두면 오래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즈 보관법은 먹다 남은 치즈의 마른 부분에 우유를 묻히고 랩에 싸서 전자렌지로 살짝 가열해 주면 맛이 되살아나고 부드러워집니다. 또 치즈를 오래 보관하려면 가운데부터 잘라먹고 남은 것의 자른 면을 서로 붙여 랩에 싸서 보관하면 됩니다.

묵은 쌀 냄새를 제거하려면!

자취집에서 혼자 밥을 잘 해먹지 않아 묵은 쌀이 많죠? 식초가 제격입니다. 우선 저녁에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쌀을 담갔다가 씻어서 물기를 빼놓습니다. 다음날 밥을 지을 때 한번 더 미지근한 물로 헹군 뒤 밥을 지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묵은 쌀에 쌀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붉은 고추나 마늘을 쌀통에 넣어두면 됩니다. 또 쌀 통속에 큰 마늘봉지를 깔아두면 쌀통구석에 쌀알이 끼여 썩는 일도 없습니다.

밥과 삶은 달걀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다면!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으면서 달걀을 삶으면 됩니다. 밥솥에 달걀을 넣을 때 는 반드시 알루미늄 호일로 단단히 싸야 하는데요, 달걀을 호일로 싸면 깨질 염려도 없고 밥맛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도 됩니다.

친구들이 자취방에 들어 술을 마시고 갔는데 맥주가 남았다면!

김빠진 맥주 이용해 고등어나 공치 등 비린내가 많이 나는 생선을 먹다 남은 맥주에 10분쯤 담가 놓으면 비린내가 말끔하게 없어집니다. 그런 후 젖은 수건으로 닦아 물기를 없애고 가루를 묻혀 기름에 튀기면 맛있는 생선튀김이 됩니다. 또 한가지, 튀김옷을 만들 때도 맥주를 약간 넣으면 바삭바삭하게 튀겨집니다.

신 김치는 정말 싫어하는데 집에 김치냉장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신 김치를 먹어야 한다면!

김치 한 포기당 날달걀 2개 정도를 신 김치 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12시간쯤 지나서 꺼내 먹으면 신맛이 훨씬 덜합니다. 또 깨끗이 씻은 조개껍데기를 넣어 두어도 하루만 지나면 신기하게도 신맛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 편집부장 07 황인영

벌써 2008년도의 한 학기가 지나갔네요. 우선 편집부장을 맡으면서 부족한 점도 정말 많았고, 실수도 많이 한 것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림비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신 강순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후배의 미숙함을 여러 부분에서 보완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작년부장, 차장님이셨던 유리선배와 경선선배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림비를 제작하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묵묵히 도와준 예림이, 현지, 남식이, 다나, 승호, 한별이 그리고 속 깊은 지영차장덕분에 제가 힘을 얻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사를 쓰느라 열의를 다해 힘써준 새내기 기자단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학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그것들을 계기로 2학기 때는 좀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학부의 필수요소. 비타민 편집부! 그 이름이 자랑스롭습니다. 25대 DDC학생회 또한 사랑합니다!

♣ 편집차장 07 허지영

드디어 제 생이 3번째 그림비가 발간되었습니다.

1학년 때는 선배님들께 전적으로 의지하였지만, 이번 그림비를 준비할 때는 편집부 차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왠지 모를 두려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림비가 완성된 것을 보니 이렇게 자랑스럽고 뿌듯할 수가 없네요! 무엇보다도 그림비 발간에 도움을 주신 교수님, 학우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테니, 지켜봐주세요^^

편집부 파이팅! 지정과 파이팅 입니다요!^^

♣ 07 이다나

기자단이 아니라 편집단으로써 그림비에 참여해 본건 처음이어서 그런지 이번에도 느낌이 새롭네요. 인영이와 허지 수고했구, 인터뷰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해동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예쁜 그림비가 되서 다들 즐겁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 07 최현지

후배들 기사 검토를 계기로 1년 전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사 편집하면서 작년 생각도 많이 났고, 그래서 작년에 만든 그림비도 다시 읽어보고 내 기사를 찾아보기도 했다. 생각보다 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지만 이제 그걸 만회할 마음이 없다. 하지만 1학년은 아직 2학기 그림비가 있다. 후배들이 2학년이 되었을 때 작년 그림비를 읽었을 때 후회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 바쁜 와중에 기사 쓰느라 수고 많았고, 인영이랑 허지도 수고^^

♣ 07 김남식

작년에는 기사를 쓰기만 했지 편집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작년과 반대로 기사는 쓰지 않고 편집만 하게 됐다. 이번에 들어온 새내기 기자단 모두 기사 쓰느라 수고 했고, 2학년 편집부원들 역시 편집하느라 수고했다. 부장인 인영이와 차장인 지영이! 정말 수고했어! 또한 그림비를 쓰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 07 윤예림

새내기 들어오고 처음 나오는 그림비! 다들 너무 열심히 해준덕에 잘 나온거 같아 기분이 좋지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더 앞섭니다. 대동제때도 똥똥 뭉쳐서 집부사업 잘 해줘서 고맙구요 여름에 집부 엠티 가는 것도 너무 기대됩니다^^

편집부 화이팅♡ 그리고 정말 많이 수고해준 인영이와 지영이.. 최고예요!

♣ 07 박승호

작년에 그림비를 만들면서 느꼈던 어려웠던 점들을 후배들을 도와주면서 깨달았다. 이번 그림비도 작년과 같이 성공적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다! 편집부 화이팅이다!!!

♣ 07 장한별

2학년이 되어 참여한 이번 그림비 편집은 1학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특히 이번 학기는 편집부 부원으로서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만나며 값진 경험을 한 것 같다. 비록 많은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그림비가 여러 사람들에게 즐겁게 읽히길 바란다.

♣ 08 이상혁

편집부의 일원으로 처음으로 쓰는 그림비라 미흡한 점도 많았고 아무래도 부족한 글이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었고 왠지 모를 뿌듯한 느낌입니다! 그림비가 나오면 고향에 보내서 자랑해야겠습니다!!

♣ 08 신현희

말로만 듣던 그림비를 만드는 것에 내가 참여 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진다. 이번에 기사를 쓰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을 기회로 더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08 임소영

처음 글을 쓰는 건데, 급하게 정해진 주제와 일정 때문에 더욱 맘 졸여가며 썼다. 대중교통만으로 서울을 나가보는 것 또한 처음이라 불안했지만, 현진이와 함께 소풍가듯이 갈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이 되었다.

♣ 08 이현진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낯선 곳으로 가서 탐방하고 기사를 쓴다는 것에 막막한 기분이 들면서도 일단 해보기로 했다. 정신없는 탐방에다가 기사이지만 무엇보다도 재밌는 추억을 남긴 것 같다.

♣ 08 심리나

글쓰는건 정말 귀찮아해서 편집부에 든걸 내심 불안해 하고 있었는데 쉬운걸 말아서 그런지 정말 편안하게 했습니다! 편집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고~ 과에서 회의라는 것도 처음 해봐서 신기하기도 했고, 재미있었습니다!

♣ 08 하늘빛

처음으로 써보는 기사라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자료 조사해 놓은건 많았는데, 한정된 분량에 많은 내용을 넣어보려는 욕심은 있었지만 그만큼의 글 실력이 부족하여 많이 고생했네요. 다음에는 좀 더 다듬어진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 08 김 솔

외국의 도서관들이 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찾는 동안 한성대의 학술정보관처럼 영화를 제공한다는 기사는 못 봐서 좀 부듯했다.

♣ 08 김영상

그림비에 들어가는 기사를 직접 쓰니까 정말 편집부에 소속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 글 솜씨는 별로지만 앞으로 계속 써나가면서 좋은 글 많이 써볼게요 ㅋㅋㅋ나름대로 재밌었습니다!)

♣ 08 이 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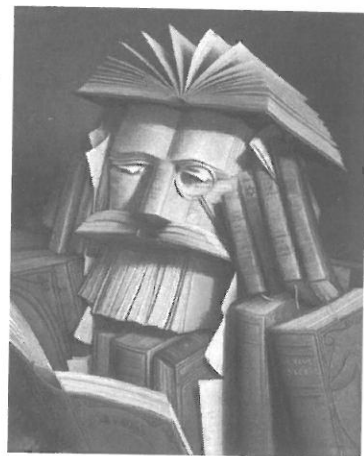
이번 그림비 작업에 참여하면서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노력은 별로 들어간 것 같진 않지만, 이번 작업에 애쓰신 편집부선배님들, 동기들 수고하셨습니다.)

♣ 08 장수진

'그림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군.' 처음 그림비를 만들때 든 생각이었다. 왠지 처음이라 어설퍼 보일까봐 걱정되는 기분이라 내가 쓴 글이 실렸다는데 신난 기분이 들었다. ^^ 다음번에는 아쉬운 마음 들지 않게 더 노력해야겠다.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다.^^

♣ 08 심지수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자발적으로, 그것도 친구 솔지를 설득까지 해서 편집부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 처음의 열성과는 달리 회의에 늦기도 했고, 집부사업을 딱히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고, 제일 중요한 기사마저도 잘 써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 편집부 선배님들과 동기들, 그리고 그림비를 읽어주시는 지식정보학부의 모든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기사를 쓰는게 너무 어렵고 막막해서 힘들었지만, 기사를 쓰면서 짧지만 결코 짧지 않은 대학생활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비타민 편집부 파이팅!

♣ 08 전지원

입학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1학기가 다 끝나가네요~그 동안 그림비 작업, 대동제 집부활동 하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동전던지기 만원 넘게 수익이 있어서 넘 좋았어요~~*

♣ 08 유슬지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집부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조금은 가까워 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그림비 작업하는 동안 한 일이 별로 없어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 해야겠다!ㅋㅋ

♣ 08 안은지

집부사업때 선배들이 다 준비해줘서 우리 08 동기들은 할 일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파는 것은 열심히!! 동기들이랑 같이 물건들을 팔면서 재미있었고, 집부사업을 하면서 축제분위기도 느끼고 재밌었다.

♣ 08 이인규

안녕하세요~ ^^ 편집부를 들면서 시작한 한 학기가 벌써 끝나가네요, 1학기동안 집부활동 적극적으로 못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ㅠ.ㅠ 편집부원들 모두들 방학 잘 보내시구요, 2학기때는 더 활기차고 멋지게 집부활동 해보아요, ㅋ물론 공부도요,,ㅋㅋ

♣ 편집부선배 06 김유리

2008년도 08학번 새내기들과 함께 내는 벌써 3번째 그림비 입니다. 작년보다 많은 부원들로 이루어져 분량도 더 많아지고 그 만큼 탄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번 그림비는 작년에 부장을 맡았던 저로서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부원들을 데리고 너무너무 고생한 우리 부장 인영이 차장 지영이, 새내기들 기사 봐주고 수정해준 2학년 편집부원들 또 어려웠을 텐데도 기사 성의껏 잘 써준 새내기 기자단들 너무 수고했고,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비타민 편집부 화이팅!!

♣ 편집부선배 06 장경선

선배의 입장에서 작년과는 다른 느낌으로 조금이나마 그림비의 일부분을 채울 수 있어 뜻 깊었다. 많은 부분 도와주지 못한 미안함과 성심성의를 다해 열심히 해준 후배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이다. 열의를 가지고 그림비를 제작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스러웠다.

앞으로도 일취월장하게 지식정보 vitamin으로 활약하는 편집부를 기대해 본다. 인영이, 지영이를 비롯한 우리 편집부 가족들 모두모두 수고했어요.

어딜가나 따라다니는 편집부의 공식게임

스도쿠 입니다^^. 한학기동안 복잡했던 머릿속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 보내세요~!

규칙 : 3x3칸 사이즈의 상자자 총 9개 배열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상자에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1번씩 중복되지 않게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가로, 세로 중에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1번씩 중복되지 않게 들어가야 합니다.

	4	5		8	1			7
					2			9
9	7							
	1			6		3		
	5						1	
		4		1			7	
							8	3
	8		2					
6			4	5		1	2	

				3	7	8		
		2						4
8							9	
					1		8	
7			8	4				1
	7		2					
	9							6
4						6		
		5	6	1				



인연설 - 한용운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잠시 같이 있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더 좋아 해 주지 않음을 노여워 말고
이 만큼 좋아해 주는것에 만족하고

나만 애 태운다고 원망치 말고
애처롭기만 한 사랑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기만하는 사랑이라 지치지 말고
더 줄 수 없음을 아파하고

남과 함께 즐거워 한다고 질투하지 말고
알 수 없는 사랑이라 일찍 포기하지 말고

깨끗한 사랑으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 하렵니다.

발행일 : 2008년 6월 11일
발행처 : 지식정보학부 학생회
발행인 : 07 황인영

지식정보학부 교수님들과 학우님들은 편집부의 은은한 배경이자,
확고한 중심입니다. 그림비 발행에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식정보학부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식정보학부 VITAMIN 편집부

